기독교대한감리회
청파교회
교회세운날 1908.5.1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한적한 오솔길
사랑과 나눔을 배우고 실천하는 곳
청파교회는 함께 하는 공동체입니다

서울시 용산구 청파로 259 전화:(02)713-5254 www.chungpa.or.kr

주 일 낮 예 배 순 서

【 성령강림 후 제6주 】

인도 1부 : 김재흥 목사
2부 : 이범석 목사

전 주 ····· 반주자

임재의 기원 ····· 오소서 평화의 임금 ····· 다 함께

예배로의 부름 ····· 담임목사

▲ 경배의 찬송 ····· 8. 거룩 거룩 거룩 ····· 다 함께

▲ 공동기도 ····· 다 함께

자비하신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참 좋았다고 하셨던 주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믿으셨기에, 우리에게 이 땅을 맡기시고 돌보게 하셨습니다. 또한,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살아갈 것을 명하셨습니다. 하오나 주님, 우리는 주님의 신뢰를 저버리고, 생명과 평화의 길이 아닌 곳에서 자주 헤맸습니다. 헛된 욕망을 채우려고 이 세상과 자신을 혹사하고, 이웃을 수단으로 삼으며 살았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주님 안에서 오늘 여기 살아 있음을 한껏 누리며,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는 삶을 마음껏 경축하게 해 주십시오. 일상 모든 곳에 깃들어 있는 은총에 감사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참회의 침묵기도 ····· 다 함께

▲ 위로의 말씀 ····· 사 57:15 ····· 인도자

▲ 교 독 문 ····· 63. 시편 145편 ····· 다 함께

▲ 영 광 송 ····· 2. 찬양 성부 성자 성령 ····· 다 함께

2부 대표기도 ····· 박홍재 장로

2부 응 답 송 ····· 찬양대

2부 찬 양 ····· 459. 누가 주를 따라 ····· 다 함께

▲ 성경봉독 ····· 시53:1-6 ····· 1부:인도자/2부:조성일 집사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봉독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 함께

찬 양 ····· Ⅰ. 주님 품에 ····· 마중물찬양대

Ⅱ. 예수 안에 소망 있네 청파찬양대

말 씀 ····· **사람을 찾으시는 하나님** ····· 김기석 목사

거듭의기도 ····· 다 함께

2부특 송 ····· 이정화 집사

▲ 봉 헌 ····· 317. 내 주 예수 주신 은혜(1·5절) ····· 다 함께

▲ 봉헌기도 ····· 김기석 목사

공동체 소식 ····· 김기석 목사

▲ 평화의 인사 ····· 다 함께

▲ 보냄의 말씀 ····· 다 함께

인 도 자 : 교우 여러분, 이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복음의 말씀을 들었으니 참 자유인답게 사십시오. 곁에서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을 나의 이익과 욕망을 위한 도구로 여기는 악한 길에서 벗어나십시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여, 주님의 선한 일꾼이 되십시오.

다 함 께 : 아멘. 주님,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죄의 길에서 머뭇거렸던 지난날의 모습을 반성합니다. 사방 달짝지근한 유혹의 손길이 다가와도, 미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삶이 가장 지혜로운 삶임을 명심하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동행이 되어주십시오. 아멘.

▲ 찬 양 ····· 635. 주의 기도 ····· 다 함께

▲ 축 복 ····· 김기석 목사

주일 오후 집회	수요일 집회
선교회	낮집회 / 설교 : 김기석 목사 저녁성경공부 / 강의 : 이범석 목사

청파교회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groups/chungpa

좋아해! 우리 마을 5총사

지난해 가을, 예상치 못한 이웃이 나타났다. 그것도 다랑이 다나와 비슷한 또래의 아이가 둘 있는 집, 심지어 그 집 막둥이 이름이 다울이란다. 그 이름도 정다운 정다울! 그리하여 우리 마을 5총사가 탄생하게 되었다. 나이순으로 정리하자면 11살 박다울(남), 7살 박다랑(남), 6살 정겨울(남), 4살 박다나(여)와 정다울(여)!

나도 지난날을 떠올려 보면 집 가까이 사는 절친이 없던 날과 있던 날은 질적으로 큰 차이가 있었다. 2차원 평면이 4차원 홀로그램으로 확 뒤바뀌는 정도의 차이랄까? 그와 같은 차이와 변화가 우리 마을 5총사에게도 벌어졌고 그것은 곧 내 삶의 변화와도 이어지게 되었다. (엄마를 중심으로 돌아가던 아이들의 우주가 그 축을 친구로 바꾸며 재편성 되었으니 실로 엄청난 변화다.)

지난 주말, 마침 종일 비가 내리는 날이었다. 겨울이 (정)다울이와 하루종일 실컷 놀 수 있다는 생각에 어서 주말이 되기를 바라고 있던 아이들은 아침 일찍부터 비를 뚫고라도 달려 나갈 기세였다.

"엄마, 오늘 겨울이 유치원 안 가는 날 맞지? 우리 겨울이 집에 놀러 갔다 올게!"(다랑)

"안 돼! 비 오는 거 안 보여? 오늘 하루종일 비 많이 온다고 했어. 오늘은 그냥 집에서 놀아."

"나 다울이랑 놀기로 했는데… 비 그만 오라고 수리수리 해야겠다. 비 오지 마라 수리수리 마수리!"(다나)

주문을 외우고는 곧장 문을 열고 뛰쳐나가는 다나를 붙잡아 왔다. 다나가 탈출하는 틈을 타서 함께 뛰쳐나가는 다랑이도 무섭게 불러들였다.

"야, 오늘 같은 날 애들 다섯이 집에서 날뛰면 겨울이 엄마 아빠가 얼마나 피곤하겠냐. 이따가 엄마가 비오는 날 기념으로 만화영화 보여 줄 테니까 집에 있어."

평소 같으면 만화영화란 말에 펄쩍펄쩍 뛰면서 기뻐했을 텐데 아이들은 시무룩한 얼굴이었다. 겨울이랑 같이 보고 싶다면서 저희들끼리 이런 말을 주고받았다.

"겨울이가 없을 때는 비 오는 날이 심심하지 않았어."(다랑)

"그때는 우리끼리 놀아도 재밌었잖아. 솔직히 난 겨울이가 마음에 안 들 때도 많아. 무슨 놀이를 하자고 하면 금방 싫증내면서 다른 거 하자고 하고, 우리가 좋아하는 싸우기 놀이도 겨울이가 싫어해서 못하고…"

"맞아, 겨울이는 자기 맘대로일 때가 많아."(다랑)

"다울이도 나한테 사탕 안 준다고 그랬어. 그래서 나하고 싸웠어."(다나)

"근데 왜 이렇게 자꾸 생각나고 같이 놀고 싶은 거지? 이런 게 진짜로 좋아하는 건가? 아앙, 겨울이랑 다울이 보고 싶다!!!"(다울)

"나도!"(다랑)

"나도!"(다나)

아이들 말을 듣고 보니 기가 막히기도 하고 우습기도 해서 마침내 내가 져 주기로 했다. 아침 먹고 아침 운동 제대로 하면 겨울이네 집에 가도 된다고… 아이들은 드디어 환호성을 내지르며 기뻐했고 비를 뚫고 겨울이네로 달려갔다. 갔다가, 이내 겨울이 다울이까지 데리고 우르르르 우리집으로 몰려왔다. 그러고는 얼마나 재밌게들 노는지… 얼마나 신나게들 떠들고 웃어 대는지…

곁에서 지켜보면 '저렇게 좋을까' 싶다가, '좋을 만도 하지' 싶다가, 결국 '참 좋을 때다!' 부러워진다. 서로 싸우고 삐치고 울고 때릴 때도 있지만 돌아서면 또 좋아서 어쩔 줄을 모르니 말이다. 나도 저럴 때가 있었나? 좋아하고 좋아하고 또 좋아해서 날마다 '좋아해'라는 바다에 풍덩 빠져서 살던 날들이?

* 노석미 작가의 그림책 '좋아해'의 글밥을 가지고 노래를 만들었다. 좋아하는 사람, 동물, 꽃, 나무.... 무엇이든 이름을 넣어 부를 수 있다는 게 이 노래의 매력! (https://youtu.be/E3aecsoSxDw)

- 정청라, <가톨릭 뉴스 지금여기> 2019년 7월 3일판

정청라 - 아이를 기른다는 것은 '스스로 길이 된다는 것'임을 떠올리며 노래로 길을 내면서 시골에서 농사지으며 살고 있다.

고욤

이정록

아버지는 망치와 낫과
대패와 펜치와 자귀와 못을
내 고사리손 가까이에서 치우지 않았다.
나는 하루 내내 아무것이나 만들었다.
내 손톱에 고인 망치소리가
채송화를 피우고 고욤으로 익어갔다.
하루는 낫으로 연 살을 깎다가
뼈가 보이도록 손가락을 도려냈다.
아버지가 누런 러닝셔츠를 찢어서
내 눈물주머니까지 우지끈 동여맸다.
아들아 왜 손가락이 열 개겠어?
하느님이 손가락을 왜 열 개나 줬겠냐고?
지나던 닭에게 개구리를 던져주듯
평생 쓸 처방전을 곁들였다.
다음날에도 연장통을 치우지 않았다.
살점이 썩어 문드러진 뒤 새살이 돋았다.
왜 손가락이 열 개겠냐고? 아직도 아버지는
손톱달에 걸터앉아 예술론을 펼친다.
새로운 생각은 고욤나무에
감나무 순을 접붙이는 것이지.
멍든 고욤손톱을 뽑아내고
꽃봉오리를 펼치는 일이지.

헌금 영수기

십일조 및 월정헌금

강석남 곽수정 국지연 김용길 최영혜 김용진 박효선 김용태 박정숙 김정길 최숙화 김정수 정자현 김정훈 이진영a김종락 박영신 김진혁 신다현 김철수 유영남 김충실 조아라 김혜라 박경원 박병구 박지혜 박지혜 변재민 이소혜 신문희 심창현 심해성 안지민 오유경 김현동 이미휘 이부곤 이용석 이우엘 이재문 이정우 장윤지 이정은a 이증자 이한림 김명희a임진엽 장기풍 장동훈 정은선 정연경 조두희 오연훈 조미선 조병무 송양진 한상익 정영선 한성건 정지혜 한인철 조윤숙 허정호 허호범 박성실 현 진

감사헌금

권미숙 권혁순 박혜경 김나름 김일재 김정완 김태은 김태정 노신후 박병구 김인순 박재영 이현정 서담이 신기호 안민호 안순심 안현호 이로사 이범석 류정욱 이상도 이완구 이은빈 은서 은진 정학성 김현숙 채일석 최원영 최지은 허명선 무명3

생일감사헌금

안정숙

녹색꿈헌금

구혜린 김성준 김정화 유수진 윤선호 임선아 이영하 이증자 정은진 추광미

예배 및 모임

예배	시간	장소	예배	시간	장소
유아부예배	10:50	유아부실	1부예배	09:30	대예배실
유치부예배	10:50	유치부실	2부예배	11:00	대예배실
유초등부예배	10:50	교육관	성서학당	13:30	대예배실
중고등부예배	10:50	중고등부실	수요집회	11:00	교육관
1청년부예배	13:30	유치부실	새벽기도회	06:00	교육관(일·월 쉼)
2청년부예배	13:30	청년회실			

교회소식

1. 선교회 : 오늘 오후집회는 선교회별 모임입니다.

2. 신앙실천 : 여름철 적정 냉방온도는 25~26도입니다. 과도한 냉방을 자제합시다.

여름 성경학교/수련회 안내

유아부	7월 7,14,21,28일	교회
유치부	8월 11일	교회
아동부	8월 10~11일	팀수양관
중고등부	7월 20~21일	서울대공원 캠핑장
청년1부	7월 27~28일	세종청파교회
청년2부	8월 15~18일	천안단비교회

다음주	설교본문		설교	기도	성경봉독	인도
	막1:35-39	1부	김기석	공동기도	인도자	김재흥
		2부	김기석	김정민	남인자	이범석
7월	1부 영접위원	김성우		헌금위원	박유경	
	2부 영접위원	안홍숙 황현성 안종일 서정순 정현주 이오복				
	2부 헌금위원	권혁순 이형숙				
식당봉사	오늘	안홍숙 이수정 노성희 정현주 곽권희 이수자 안종일 홍순구				
	다음주	이소애 이소혜 박유경 김지현 김해선 남인자 강세기 김성우				
설거지봉사	6여선교회(오늘)	청파7속 (다음주)		커피봉사	2여선교회	

※ 교인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안내위원이나 목회자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우리 교회 주보는 재생용지를 사용하여 만듭니다.